

「NHI-Live(7-9월)」 발간 기사 목록

vol.55

구성	주요내용
NHI News(6)	□ 베트남 총리 방한 계기, 공직인재개발 협력 강화(8월) - 양국 총리 참석한 가운데 호치민 정치아카데미와 양해각서 체결
	□ 한-베 공직인재개발 협력 확대(8월) - 베트남 내무부 장관 국가인재원 방문, 양국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협의
	□ 교육혁신 전문가 벤 넬슨, 공공 인재교육 방향 제시(9월) - 미네르바 프로젝트 대표 벤 넬슨, '공공 인사관리 학술대회' 기조연사로 나서
	□ 5급 신입사무관 311명, '공직 첫 발'(9월) - 제69기 신입관리자과정(공채) 수료식 개최
	□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 40년, 수료생들의 특별한 방한(9월)
	□ 한국 디지털 전환 전략 연수 위해 이집트 공무원 방한(9월) - 내달 4일까지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 핵심인재 대상 '혁신역량 강화연수' 실시
NHI Plus ⁺ (1)	□ 푸르른 하늘과 오색 빛 단풍이 어우러진 나들이의 계절 속으로(9월) - 다채롭고 환상적인 가을 소풍 추천지 Top 4
기 타(1)	□ (퀴즈 이벤트) 웹진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퀴즈 구성(9월)

베트남 총리 방한 계기, 공직인재개발 협력 강화

—양국 총리 참석한 가운데 호치민 정치아카데미와 양해각서 체결, 교류 활성화—

베트남 총리 공식 방한을 계기로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으로 베트남 「팜 밍 쩡(Pham Minh Chinh)」 총리 내외 공식 방한(6.30. ~ 7.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베트남 팜 밍 쩡(Pham Minh Chinh)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김채환 국가인재원장과 즈엉 쩡 이(Duong Trung Y) 호치민정치아카데미 부원장이 '공공 부문 인재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고위·관리자·실무급 훈련 과정 제공 등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 대표단 상호 방문, 연구회(세미나), 연수회(워크숍),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인재원은 호치민정치아카데미와의 이번 양해각서가 향후 양국 간 공직 인재개발부문 교류 협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인재원은 베트남과 공무원 인재개발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호치민정치아카데미와 지속적인 교육 교류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응우옌 쉰옌 탕(Nguyen Xuan Thang) 호치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이 방한해 김채환 원장과 공직자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에 대해 협의했고, 이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강화과정」 2년차 연수가 10월 말 베트남 정부 고위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규 교육훈련 사업 추진을 통해 호치민정치아카데미와의 교류협력을 정례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양국 공무원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두 기관 간 협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이러한 협력 강화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공무원 역량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 「팜 밍 쩡(Pham Minh Chinh)」
총리 내외 공식 방한(7.2.)>



<김채환 국가인재원장과 즈엉 쩡 이(Duong Trung Y)
호치민정치아카데미 부원장 공공 부문 인재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7.2.)>

한-베, 공직 인재 개발 협력 확대

—베트남 내무부 장관 국가인재원 방문, 양국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협의—

방한 중인 베트남 내무부 장관이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협의를 위해 진전을 찾았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 이하 '국가인재원')은 17일 진천 본원에서 팜 티 타잉 짜(Pham Thi Thanh Tra)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베트남 내무부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갖고 공직 인재개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면담은 베트남 내무부 대표단 방한 일정 중 국가인재원을 방문, 공무원 인력 양성 관련 경험 공유 및 교육·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를 원한다는 베트남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베트남 내무부는 공무원 양성 업무 담당 부처로서, 특히 산하에 베트남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행정아카데미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금번 방문시 동 아카데미 원장도 동행했다.

진행된 면담에서 양측은 ▲베트남 중앙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베트남 국립행정아카데미 교직원 및 교수요원 대상 역량강화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고, 계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가인재원은 베트남과 공무원 역량강화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지난해「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였으며, 올해에도 동 과정 2년차 연수가 10월 말 베트남 정부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일에는 베트남 정부 고위공무원 양성 기관인 호치민정치아카데미와 양해각서를 체결,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양국간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인력 양성 부문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면담을 바탕으로 베트남과의 공직 인재개발 협력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내무부 장관 방원 및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협의(7.17.)>



<베트남 내무부 대표단 방원 단체사진(7.17.)>

교육혁신 전문가 벤 넬슨, 공공 인재교육 방향 제시

— 미네르바 프로젝트 대표 벤 넬슨, '공공 인사관리 학술대회' 기조연사로 나서 —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 설립자가 공공부문 인재 양성 교육을 논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오는 6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국제(글로벌) 공공 인사관리(HR)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지도력(리더십): 공공부문 지도자(리더)가 갖춰야 할 소양'이다.

기조 연사로 세계적 교육혁신가인 벤 넬슨 미네르바 대학 설립자(프로젝트 대표)가 나서고,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와 대담을 진행한다.

벤 넬슨은 학습 방식의 혁신을 강조하는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특히 혁신적 교육방식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공공부문의 지도자(리더) 양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등록 후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국가인재원 누리집 (www.nhi.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올해는 인공지능 혁신시대에 대응하는 공직 인재개발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뤄지도록 구성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지도자의 역할 및 역량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공공 인사관리(HR)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5급 신입사무관 311명, '공직 첫 발'

— 제69기 신입관리자과정(공채) 수료식 개최 —

2023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11명이 신입관리자과정 (2024.5.13.~9.6.)을 마치고 사무관 시보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6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제69기 신입관리자 과정 (공채) 수료식을 열어, 그간의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수료증 및 임명장 수여, 공무원 선서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7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사무관 시보로 임용된 311명은 향후 1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행정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내년 9월에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입관리자과정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 ▲정책역량 ▲공직 리더십 함양에 초점을 맞춰 운영됐다.

공직의 의미와 중요성을 체득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공직가치 워크숍,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참여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6개소 국립공원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굳건히 하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 법제관의 법령안 심사 실습, 기재부 예산담당자의 예산안 심사 실습 및 실제 정책사례에 기반한 보고서 작성실습과 같이 업무 연계성이 높은 직무 교육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단계별 문제해결 실습교육을 신규 편성하고, 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첨단바이오 등 심화 강의를 진행하는 등 신규 공무원들이 디지털·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한 국장급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조직 갈등관리 및 조정방법, 유엔 공공행정포럼 참여를 통해 중간관리자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했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에서 "공무원은 헌법 7조 1항이 규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 정부의 원팀이 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 40년, 수료생들의 특별한 방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과정」 40주년을 기념하여, 동 과정 수료자 24명을 초청하는 한국 홈커밍 행사를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였다.
- 금번 행사는 지난 40년에 걸쳐 동 과정을 수료한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과의 우정과 협력을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운영되었다.
-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과정은 국가인재원이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정 중 가장 기간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수료생 중 다수가 의회 및 행정부, 기업 등에서 상당한 고위급 인사로 성장하여 한-말레이시아 양국관계 개선 및 교류에도 기여해오고 있다.
- 본 과정은 전쟁 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인적자원에 대한 집중 투자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기 위한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수상의 동방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984년부터 40년간 지속되고 있어 지난 40년간 91차례(매년 평균 2~3차례, 2~3주간)에 걸쳐 운영, 20:1의 높은 경쟁률을 통과한 말레이시아의 엘리트 공무원 1,842명이 참여한 바 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2012년 동 과정의 고위급 수료자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동창회를 조직, 한국 연수경험을 공유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하는 등 자국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점차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수료생들의 한국과 국가인재원에 대한 열렬한 관심과 지원에 호응하기 위해 국가인재원은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동창회 보수교육 차원의 현지 세미나 개최를 지원해오고 있다.
- 또한 수료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 주무부처인 인사행정처를 비롯,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도 관심 표명 및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국가인재원의 말레이시아 수료생 동창회는 발족 후 우리 국가이미지 제고 및 양국간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는 등 자국내 모범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 홈커밍 환영식에서는 국가인재원장과 함께 수료생 모두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도장으로 기념 서명을 하였으며, 과거 연수를 받았던 캠퍼스를 돌아보았다.
- 이어, 수료생들은 'AI 및 한국의 디지털 정부 등 최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듣고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십을 비롯한 미래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국가인재원이 개최한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에 참여, 기술 혁명기에 필요한 공직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도 가졌다.
- 또한 교육과정의 성과를 둘러보는 워크숍에서 일부 수료생들이 교육과정 참여가 자신과 조직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발표를 하자, 모두가 함께 큰 박수로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 등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 특히, 수료생 동창회 부회장(마푸자 국방부 과장)은 동창회 발족 후, 수료생들이 매년 한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 동창회 차원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인재원 교육 당시 경험했던 한국의 활발한 봉사활동 사례를 앞으로 말레이시아에 좀 더 확산하고 싶다고 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 한편, 수료생들은 과거 '62년 한-말 교류가 시작된, 파주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를 찾았고, 김포의 농장에서는 고추장과 인절미를 만드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생들을 만나 환영하는 자리에서 "수료생 동창회가 지난 40년간 양국 정부간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홈커밍이 향후 유대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공무원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수료생 동창회도 적극 지원함은 물론,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제2, 제3의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 모델을 만듦으로써 국가간 공무원 교육 분야의 지식과 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수료생을 환영하는 김채환 원장



수료생들의 인재원 단체사진



동창회 활동 보고



글로벌공공 HR컨퍼런스에 참가중인 수료생들



말레이시아 橋를 방문한 수료생들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수료생들

한국 디지털 전환 전략 연수 위해 이집트 공무원 방한

— 내달 4일까지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NTA) 핵심인재 대상 '혁신역량강화연수' 실시 —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NTA) 핵심 인재 15명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과 우수 인재 양성 비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국가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내달 4일까지 2주간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National Training Academy, NTA) 소속 핵심 인재 15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한국의 인재개발 경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 이집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집트의 '정부 전망(비전) 2030'과 '디지털 전략' 실행을 주도할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다,

* 한국 국제협력단(KOICA) 지원

연수에서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 교직원들은 고품질·혁신적 교육자료 및 온라인 짧은 학습영상(이러닝)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등을 학습한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방문,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수도 받을 예정이다.

국가인재원은 이집트 공무원들이 한국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별 정책 보고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귀국 후 현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이집트는 최근 디지털 전환과 정부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이집트 공무원들이 자국의 디지털 전환 및 2030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르른 하늘과 오색 빛 단풍이 어우러진 나들이의 계절 속으로

다채롭고 환상적인 가을 소풍 추천지 Top 4



기나긴 무더위가 가고, 드디어 살랑바람 부는 가을이 왔다. 고운 빛깔로 물든 단풍과 감성 가득한 정취가 어우러진 이 계절은 단연 나들이 나서기에 제격이다. 물론 환상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는 곳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할 테다.

MZ세대가 선택한 '원 픽(One Pick)' 단풍길_화담숲



예약 없이는 발길을 돌려야 할 정도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단풍 명소로 이름난 화담숲의 명성이다. 서울에서 약 40분 거리인 경기 광주에 있는 이곳은 화담(和談) 즉 정담게 대화 나눈다는 이름처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교감하는 생태공간이다. LG상록재단에서 정성 들여 가꾼 대지 16만 5,265㎡(약 5만 평)엔 국내외 자생 · 도입 식물 4,300여 종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또한, 가을이면 우리나라 최대 품종인 단풍나무 480여 종이 절경을 이룬다. 노고봉 능선 따라 드리운 수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숲속 산책길 5km 전 구간을 경사가 완만하게 조성해 휠체어, 유모차 등이 출입 가능하다. 더 나아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을 운행해 왔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멸종위기종인 반딧불이와 원앙이 생태 환경 복원에 이바지해 온 만큼 도롱뇽, 고슴도치, 다람쥐 등을 마주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소개했듯 화담숲은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쾌적한 관람 차원에서 시간대별 입장 정원에 따른 전체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방문 전 일정 체크는 필수이다.

주 소 |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278-1 화담숲
이용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입장 마감은 오후 5시)
※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운영시간 변경 가능
관 람 료 | 성인 - 1만 1,000원 / 경로 · 청소년 - 9,000원 / 어린이 7,000원
예 약 | <http://www.hwadamsup.com>

최근 떠오르는 피크닉 핫 플레이스_진천 농다리 둘레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자리한 진천에 최근 떠오르는 피크닉 명소로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 바로 농다리 둘레길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코스는 문백면 구곡리 굴티마을 앞 세금천의 농다리에서 시작한다. 길이 93.6m와 너비 3.6m, 폭은 80cm인 이 교각은 약 1,000년 전 고려 시대에 축조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석 돌다리로 충북도 유형문화재 28호 지정의 영예를 누렸다. 더불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 가운데 하나로서 드라마 <모래시계>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등에 등장하기도 했다.

건너는 이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농다리를 지나 초평호로 이어지는 초롱길은 시원한 바람과 지저귀는 산새 소리가 인상적이다. 언덕길 너머 수변 탐방로 따라가면 올해 4월 개방한 미르309 출렁다리가 우리를 반긴다. 마치 한 마리 용처럼 길게 늘어진 309m의 국내 최장 무주탑 현수교에서는 순간, 탁 트인 경관이 펼쳐진다. 아울러 인근엔 현대모비스가 100억 원을 투입해 10년간 공들인 미르숲과 제1하늘다리, 맨발로 걷는 1.8km 황토 숲길 등이 있으며 올해 무려 방문객 약 100만 명이 다녀간 바 있다. 참고로 물 맑은 초평호 일대엔 담백하고 감칠맛 나는 붕어찜이 일품이라고 하니 꼭 경험해 보자.

주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이용 시간 | [미르309 출렁다리 이용 기준] 오전 9시~오후 6시(11~2월엔 오후 5시까지)
※ 호우나 태풍 기상특보 발효 시 농다리, 미르309 출렁다리 등은 입장 금지
관 람 료 | 무료
확 인 | <https://www.jincheon.go.kr/site/tour/sub.do?menukey=2162>

갯 물 올라 신선하고 알찬 대하의 맛_홍성 남당항



가을, 하면 전어와 함께 밥상에 오르는 제철 먹거리가 있다. 다름 아닌 대하다. 서해에서도 신선하고 알찬 대하가 모이는 홍성 남당항은 천수만에 위치한 청정 어항으로, 꽃게, 새조개, 주꾸미 등 각종 어종이 가득하다. 게다가 올해는 8월 3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우리나라 최대의 홍성 남당항대하축제가 열려 미식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축제 기간에 이곳을 방문하면 맨손 대하잡이 체험, 대하 까기 대회, 대하 경매,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 주말엔 인기가수 특별 공연과 관광객 노래자랑이 이어진다. 노을이 내려앉는 시간엔 해안 따라 아름다운 낙조 감상이 가능하다.

물론 소금구이나 버터 얹어 굽는 자연산 대하, 선연하게 붉은 꽃게찜, 해물라면 등은 반드시 먹어 봐야 할 별미다. 저녁 무렵 열리는 야시장에서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풍성한 식사를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 보자.

주 소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이용 시간 | [축제 기준] 08월 30일~10월 31일
입 장 료 | 무료
확 인 | https://blog.naver.com/official_namdang

질푸른 밤하늘 아래 고운 빛 찬연한 유등_진주 남강



해가 저물면 경남 진주성 일대엔 은은하고 고운 빛을 품은 유등이 일렁인다. 해마다 10월을 맞이해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열리는 까닭이다. 진주대첩이 한창이던 1592년 당시 성 내에 있는 조선 의병이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남강에 유등을 띄운 데서 유래한 전통은 오늘날 추억을 담는 행사로 다시 태어났다.

남강에서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선보이는 올해 축제는 10월 5일에 시작해서 20일까지 16일간 7만 개의 유등에 불을 밝힌다. 테마 역시 다양해서 세종대왕이나 첨성대와 같은 역사뿐 아니라 드라마 <오징어게임>, 한류스타 BTS 등의 문화 콘텐츠를 담아낼 예정이다. 또, KF-21, 수리온, UAM 등 항공우주 관련 유등이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나아가 진주대첩역사 공원에는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진주대첩 재현 유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매년 많은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낸 드론 쇼는 드론 1,000대를 동원해 총 4회 공연을 개최하고자 한다.

겨레의 얼과 우리 문화, 그리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함께하는 가운데 유등 따라 걷다 보면 가을밤이 한층 깊어져 간다.

주 소 | 경남 진주시 본성동
이용 시간 | [축제 기준] 10월 05일~10월 20일
입 장 료 | 무료
확 인 | <https://yudeung.com>

참고자료

화담숲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 화담숲

중앙일보, "309m 출렁다리 효과? 1000년 된 '농다리' 관광명소로 뜬다", 2024.05.11

[진천군청] 초평호 미르309 출렁다리

홍성남당항대하축제

[네이버 향토문화전자대전] 진주남강유등축제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Quiz

'AI시대의 리더십: 공공부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의 기조연사로 나선 미네르바 대학 설립자는 누구일까요?



Hint는 NHI NEWS를 참고하세요!

응답하기

응답기간

2024. 10. 9.(수) ~ 2024. 11. 14.(목)



정답을 맞힌 7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보내드려요!

<NHI 매거진>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대표 정책부터
행사, 이슈, HRD 등의 최신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